



###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9>

#### 광명과 부처님 세계

보현보살이 사자빈신삼매 경계에 대해서 설하고 난 후,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간의 흰 털로부터 큰 광명을 놓는다. 그 광명의 이름은 삼세의 법계를 두루 널리 비추는 광명(普照三世 法門)이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세계 제불국토에 비치었다. 그 때에 서다림에 있던 보살대중은 모두 모든 세계 불국토의 여러 가지 이름·빛깔·정정함·머무는 곳·형상을 보게 되었다.

입법계품에 설해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뜻은 어디에 있으며,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보살들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명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보살은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부단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펼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명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화엄경>에서 모든 광명의 근원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 근원을 둔다. 그러므로 광명의 근본은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인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법에 정각을 이룬 한없이 지혜로운 분이 다. 이러한 성격은 무엇보다도 비로자나

지혜를 비로자나 여래로 해서 인격적으로, 힘차고 활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여래의 활동이 주제가 되고 할 수 있다. 지혜의 광명은 말할 것도 없이 여래의 지혜가 중생들의 무명 암흑을 깨뜨리는 것으로, 지혜의 작용이 세상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화엄경>에서는 지혜광명을 가지고 한없이 자비로운 여래의 활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화엄경>은 세상 만물에 작용하는 크나큰 자비의 생명력으로서의 여래의 활동을 찬탄하고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큰 자비에 입각한 이타(利他)의 작용은 절대적인 대승의 입장을 전명하는 <화엄경>의 커다란 특색이 되고 있으며, <화엄경>에서 누누이 설해지고 있다.

### 공간적 무한성, 자비로운 작용 전개

### 마음·세계 하나되어 활동하는 세계

(Vairocana)불이라고 하는 명호에 잘 나타나 있다. 비로자나(Vairocana)라는 말이 '광명을 두루 널리 비추다(光明遍照)'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지혜의 빛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추는 뜻으로, 부처님의 본질이 사물의 진실을 아는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비로자나 불은 특히 공간적인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광명이란 태양에 비유되는 자비로운 작용이 되어 전개하는 지혜의 광명이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티끌과 같은 시방세계에/ 광명 그물이 가득하고/ 광명 속마다 불타가 계셔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

운전하시는 묘한 법수레/ 법의 성품이 차별 없나니/ 오직 진실한 이치에서/ 모든 법상(法相)을 연설한다.

중생들이 많고 넓어 풀이 없건만/ 여래께서 모두가 염려하시고/ 비탄 법륜 골고루 굴리시나니/ 비로자나불의 경계로다.

<화엄경>에 설해진 이러한 설법을 통해 화

엄경의 여래는 일체 존재의 진실을 밝히는 대지혜의 부처님(大智慧佛)으로, 확실히 중생 구제자로서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신불은 영원불멸의 부처님으로서 그대로 한없는 지혜이고 자비이다. 지혜는 우리들 인간의 근원적인 무명을 비추어서 없애는 광명이 되어 작용하고, 자비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서 따뜻하게 감싸고 고뇌를 없애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참된 생명이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이 대지혜불(大智慧佛)이라고 해서 다만 주관적인 지혜만을 부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지혜에 의해 비춰 나온 객관적인 세계도 또한 부처님의 내용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세계가 하나(一體)로 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다. 중생의 가지가지 업보에 의해 여러 모양과 상태로 느껴지고 있는 세계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눈으로 보면 미묘하게 장엄된 화상세계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불국토, 즉 한량없는 광명과 장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제다. 여래의 광명이 비치는 곳이 객체적인 세계로서의 불국토다. <화엄경>에서 여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객체적인 세계의 성립이 여래의 광명에 의해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공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진실된 모습이 여래의 지혜 광명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계는 객관적으로는 장소적으로 나타나지만, 주제적으로는 체질적으로 파악되는 마음의 세계(心境)라 할 수 있다. 진실로 이 현실의 세계는 우리들 마음가짐에 의해 사바세계도 되고 화상세계도 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 강길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9>

#### 태아 생명도 존중돼야 한다

불교에서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로 한 번 눈을 돌리면 태아의 생명은 너무나 무참하고 짓밟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에 우리 나라에서 생명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때 낙태 문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부분적인 허용, 허용 반대, 완전 허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완전이든 부분이든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젊

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기형아 출산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다. 따라서 연 200만 건이라는 낙태수술의 거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태아의 생명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응급(사후)피임약인 '노레보'의 경우는 어떤가. 일반 피임약과 달리 '노레보'는 성관계 후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기낙태나 다름 없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가. 이 또한 건전한 목적으로 의학에 이용한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역시 초기 태아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에

#### 낙태, 연 200만건 불법시술 문제

#### 이타행·천도재 등 영가 위로해야

은 중일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고소득층일 수록, 무종교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산모들이 임신 중 초음파를 많이 찍는다. 이런 과정에서 배속의 태아가 단지 '손가락이 하나 모자라서' 혹은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라는 이유로 세상구경도 못하고 죽어 가는 생명이 많다.

우리 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든 낙태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몇 가지 경우에만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임신을 지속함으로써 모

다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우리 불교인들은 무관심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며, 만약 이러한 태아의 생명사상을 알지 못하고 낙태를 시킨 경우에는 죽은 태아를 위하여 법보시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참회 진언을 많이 읽거나, 날짜를 정해 108회 참회를 하거나, 불우아동을 돕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자원 봉사를 하거나 하는 이타행을 하는 일이 좋을 것이다. 죽은 태아를 위해 천도재를 정중하게 지내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④

#### 법계연기설에 대한 비판들

보조지들의 간화선은 화엄교학을 비판하면서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화엄의 법계연기설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힌두이즘적 경향 가져

하나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초기불교 혹은 테라바디즘에 기초한 비판들이다. 이들은 화엄교학을 비롯한 대승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한국불교가 힌두이즘적 경향을 가진다고 경고한다. 물론 이런 비판은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라는 말만 보면 어떤 영역이 존재하고, 그 '장소'에서 법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듯하고, 진성연기(眞性緣起)란 말은 '성품의 일어남(性起)'이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사물에는 어떤 독자적인 성품이 존재한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설파된 '어떤 성품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무아(無我)의 관점과는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테라바디즘에 기초한 이런 비판은 대승불교에 대한 순전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기우에 불과하다. 대승불교에서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진다'는 말은 어떤 실체나 성품의 존재를 전제한 교설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본질이란 바로 연기, 공, 무자성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무시한 채, 그 말만 가지고 대승불교를 아르만을 인정하는 힌두이즘으로 왜곡시키는 방식이야말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정한 관점(法無我)을 잘못 이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인 북방 대승불교의 전통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판은 그 자체가 매우 종파적인 의도가 숨겨진 발언으로 여기고 있다.

두번째 비판은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계연기가 세간과 출세간, 혹은 몸들과 깨끗함이라는 양 가치로부터 벗어난, 번뇌와 열반을 동일시하고 모두를 긍정하는 초월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교학 체계라는 비판이다.

#### 체제 옹호·보수 대변

예를 들면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제도는 시대가 변화에서 오는 차별과 모순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엄은 그 자체로 옳다고 안이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들, 혹은 법계연기의 초월적인 입장은 불교 내부적으로는 비판기능이 소홀해지고 도덕적인 자기정화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밖으로는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인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나라나 고려에서 화엄교학은 전체 왕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권력기반의 이론적인 근

거를 제공하면서 발전되었다는 지적과 관련된다.

한편 소위 무애행(無碍行)이란 선종의 실천양식도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에 기초한 인식론에서 비롯된 실천방식이다. 이는 좋게 말하면 집착 없음을 표현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능이나 책임회피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화엄교학이 방축한 현실에 대해서 무딘 감성을 야기시킨다는 법계연기설에 관한 이런 비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 구체적 수행론 결여

세번째는 화엄의 실천론이 매우 관념적인 자기 안주에 머물 수 있음에 대한 것이다. 즉 '법계연기를 어떻게 체득하는가' 하는 구체적 수행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점은 신라말 화엄의 교학자들이 대부분 선종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나중에 고려 후기 보조지들에 의해서 구체화된 비판적 관점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간화선은 바로 화엄교학의 실천론에 대한 보완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경(禪堂담원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그림·문병성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생체 산후바람 낡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족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조차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병명

※ 직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갯바위 뒷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 승복법복인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훈방	적삼, 바지: ₩140,000
물세탁 가능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3. 누비 (면순 100%)	적삼, 바지: ₩220,000
	동방, 바지: ₩240,000
	두루막: ₩200,000
4. 누비 (훈방)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70,000
5. 법복 (회색, 밤색)	조끼, 바지: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7. 승복 (골덴)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로도 기사 주문 받습니다 ※

●맞아오시는길: 대구 지아길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중구 포장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 당뇨

###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 사람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지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른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에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x 3병 1개월분 130,000원

권교에 자신있습니다. 지인식 통우회 회장 개발인사(현역사) 박동원

당뇨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대양, 비만증, 무중,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관 아토피담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월케미칼라이프 Co. (주)반도체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